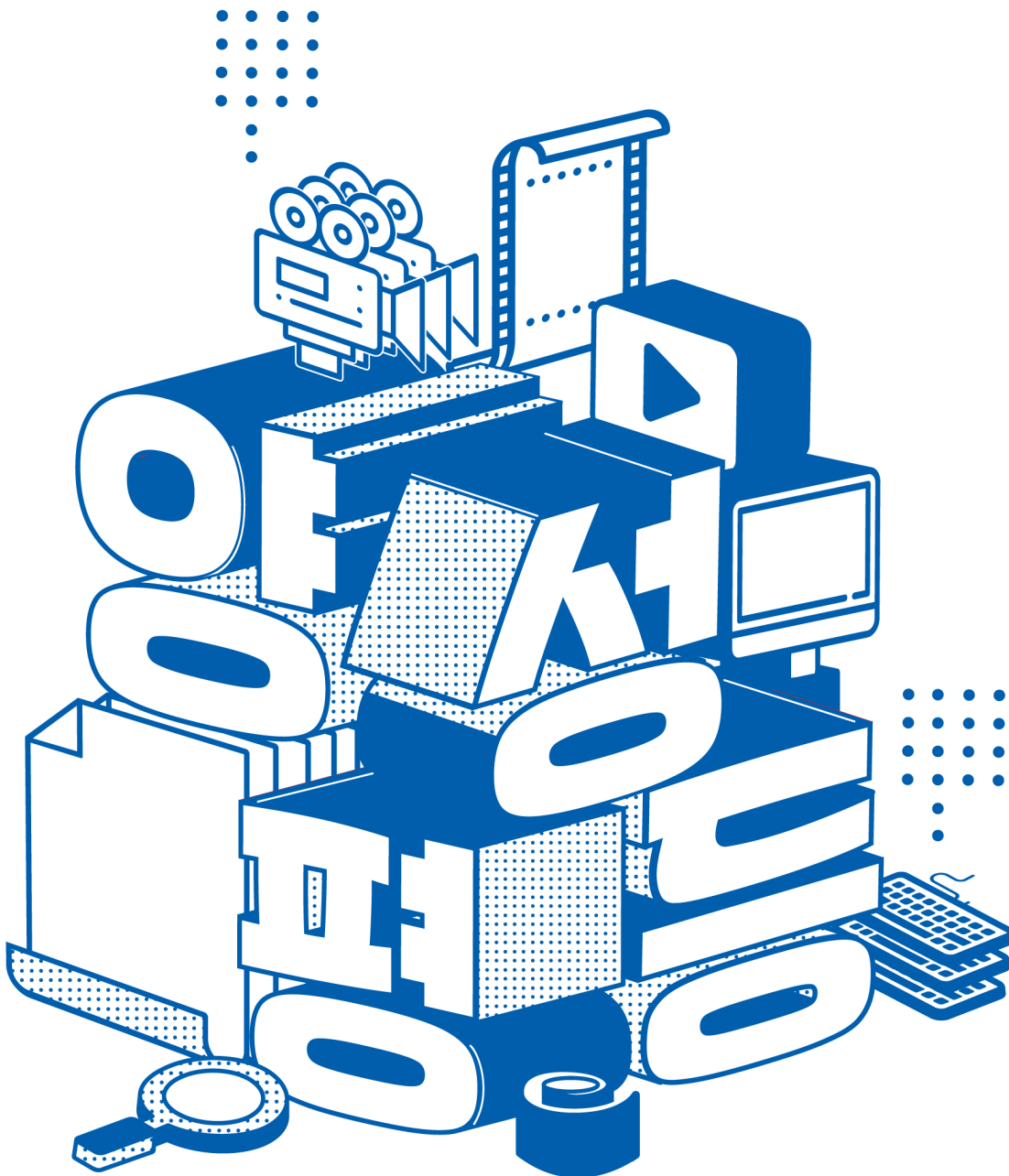


예능·오락 프로그램 II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

07

들어가며

08

양적분석

12

질적분석

16

나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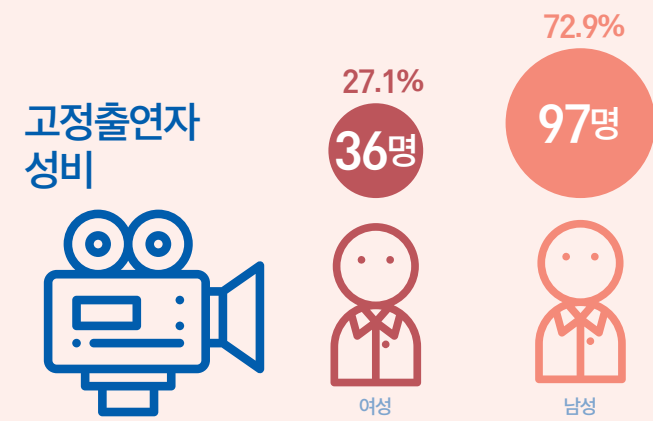
18

모니터링
내용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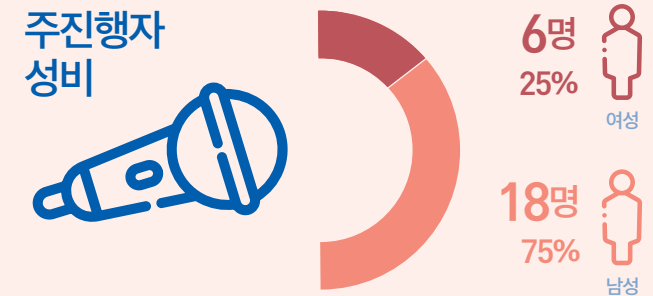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예능·오락프로그램 내용분석 보고서 II



성평등적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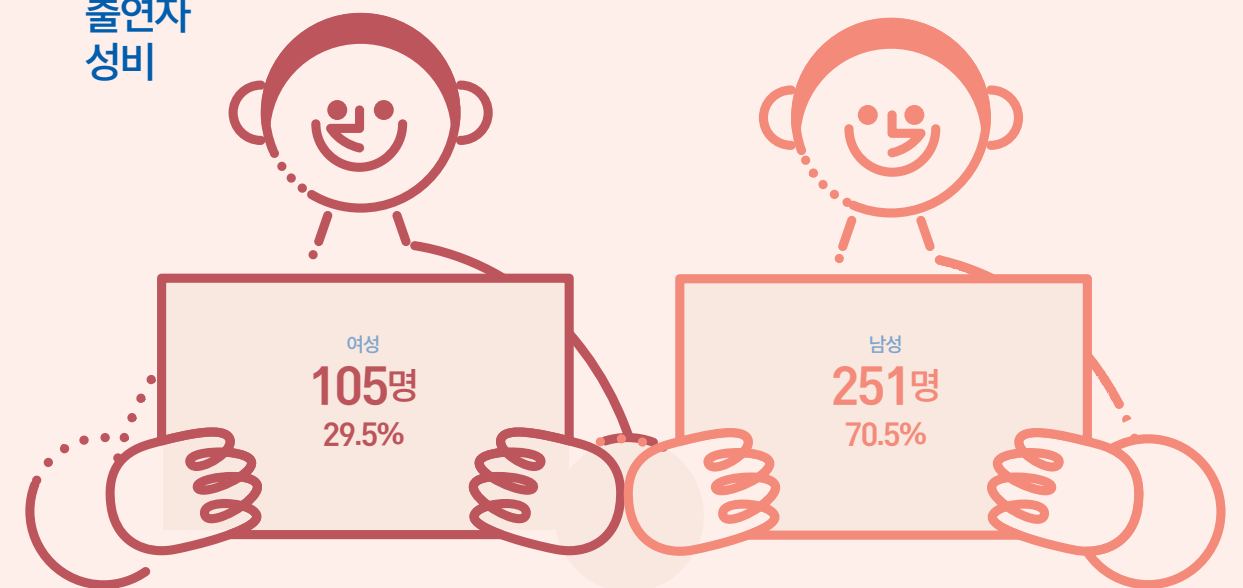
5건



성차별적 사례

35건

출연자
성비



모니터 장르	예능·오락프로그램
모니터링 기간	2019년 8월 11일(일)~31일(토)까지 방영분 중 3회분
모니터링 매체	TV(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케이블)
대상 방송사	KBS2, MBC, SBS, JTBC, TV조선, tvN, Mnet, MBC every1
프로그램 수	18개 프로그램 (표1 참조)
모니터 인원	18명

01 들어가며

이번 예능·오락프로그램 모니터링은 시청률 상위 프로그램을 선정했던 이전 모니터링과 달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시스템(www.racoi.or.kr) 내 인터넷 반응DB 속 시청자버즈(동영상조회 기준) 상위 18개의 예능·오락프로그램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TV 시청자 수가 감소하고 모바일 플랫폼으로의 예능·오락프로그램 시청이 증가하고 있는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함이었다. 시청자버즈 상위 18개의 예능·오락프로그램은 지상파 6개, 종합편성채널 7개, 케이블 5개의 채널에 분포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양성평등 모니터링 도구 표준화 제안에 따라 표준화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였다.

[표1] 모니터링 프로그램 현황

	매체	방송사	프로그램명	요일/시간
1	지상파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일/18:20
2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수/23:10
3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	월/23:00
4			집사부일체	일/18:20
5			런닝맨	일/17:00
6		MBC	나 혼자 산다	금/23:15
7	종합편성채널	JTBC	아는 형님	토/21:00
8			캠핑클럽	일/21:00
9			비긴어게인3	금/21:00
10			몽쳐야 찬다	목/23:00
11		TV조선	아내의 맛	화/23:00
12			뽕 따러 가세	목/22:00
13			우리가 잊고 지냈던 두 번째 : 연애의 맛	목/23:00
14	케이블	tvN	놀라운토요일 - 호구들의 감빵생활	토/19:35
15			놀라운토요일 - 도레미마켓	토/19:40
16			코미디빅리그	토/19:45
17		Mnet	쇼미더머니8	금/23:00
18		MBC every1	주간아이돌	수/16:44

(1) 출연자 성비

18개의 예능 프로그램 속 **전체 출연자 성비는 여성 29.5%(105명), 남성 70.5%(251명)**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2배 이상 많이 등장**했다. 지난 3월 예능·오락프로그램 모니터링¹에서 남성이 12배 더 많이 등장했던 <아는 형님>의 경우 이번 모니터링에서는 남성이 17배 더 많이 등장해 여전히 극심한 성비 불균형을 보여주었다.

지난 3월 예능 모니터링²에서는 18개의 프로그램 속 전체 출연자 성비가 여성 42.1%(250명), 남성 57.9%(344명)를 보였다. 프로그램 선정 방식이 달라졌기에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몽쳐야 찬다> <쇼미더머니 8>은 프로그램 속 특정 성의 과대 대표는 두드러진다. <몽쳐야 찬다>와 <쇼미더머니 8>은 각각 힙합, 축구를 소재로 하기에 특정 성의 과대 대표가 어쩔 수 없이 않냐는 의문이 들 수 있다. 하지만 <몽쳐야 찬다>와 <쇼미더머니 8>을 제외한 성비는 여성 37.8%(102명), 남성 62.2%(168명)로 해당 프로그램을 제거 하더라도 심각한 성비 불균형을 보였다. 지금까지 힙합, 축구가 남성 중심적 영역이라고 해서 미디어가 문제의식 없이 이를 그대로 재현한다면, 축구와 힙합이 남성의 영역이라는 성차별적인 고정관념은 반복되고 특정 영역의 성별 분리를 강화하는 효과를 지니게 된다.

[표2] 전체 출연자 성비 (단위 : 명)

	프로그램명	여성(명)	남성(명)
1	슈퍼맨이 돌아왔다	3	10
2	백종원의 골목식당	8	5
3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	11	6
4	집사부일체	1	8
5	런닝맨	6	9
6	나 혼자 산다	2	6
7	아는 형님	1	17
8	캠핑클럽	4	0
9	비긴어게인 3	4	9
10	몽쳐야 찬다	0	23
11	아내의 맛	17	9
12	뽕 따러 가세	13	16
13	우리가 잊고 지냈던 두 번째 : 연애의 맛	7	8
14	놀라운토요일 - 호구들의 감빵생활	3	13
15	놀라운토요일 -도레미마켓	5	8
16	코미디빅리그	12	26
17	쇼미더머니8	3	60
18	주간아이돌	5	18
합 계		105 (29.5%)	251 (70.5%)

1 2019년 3월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보고서 서울YWCA·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9.03)
2 2019년 3월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보고서 서울YWCA·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9.03)

(2) 출연자 성별 연령대

전체 출연자 연령대는 30대가 가장 많았고(37.1%), 20대(28.4%)가 그 뒤를 이었다. 30대 남성은 96명(전체 27%)으로 전체 연령대와 성별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고, 그 다음은 20대 남성(72명, 20.2%), 40대 남성(45명,12.6%) 순이었다. **여성과 남성의 연령대가 가장 차이를 보인 건 50대였는데, 50대 남성은 같은 연령대의 여성에 비해 3.8배 더 많이 등장**했다. 서울 YWCA 모니터링 보고서는 2017년 3월³부터 어린 여성을 선호하는 예능의 성차별적인 경향성 에 대해 지적해왔다. 하지만 이번 모니터링에서도 여성은 30대 **이하**의 출연자가(여성 출연자의67.6%), 남성은 30대 **이상**의 출연자가(남성 출연자의 66.9%) 많이 등장해 성차별적인 경향성이 공고히 유지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표2] 전체 출연자 성별 연령대 (단위 : 명)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모름	합계
전체	8 (2.2%)	9 (2.5%)	101 (28.4%)	132 (37.1%)	58 (16.3%)	24 (6.7%)	10 (2.8%)	8 (2.2%)	6 (1.7%)	356 (100%)
여성	4 (1.1%)	2 (0.6%)	29 (8.1%)	36 (10.1%)	13 (3.7%)	5 (1.4%)	6 (1.7%)	5 (1.4%)	5 (1.4%)	105 (29.5%)
남성	4 (1.1%)	7 (2%)	72 (20.2%)	96 (27%)	45 (12.6%)	19 (5.3%)	4 (1.1%)	3 (0.8%)	1 (0.3%)	251 (70.5%)

(3) 성별 역할

성별 역할은 크게 진행자와 출연자로 나눈 후, 역할 비중에 따라 주진행자/보조진행자, 고정출연자/보조출연자로 구분하였다. 스튜디오 예능의 경우 주진행자가 프로그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관찰 예능의 경우 진행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캠핑클럽>의 경우 주 진행자 없이 출연자가 예능을 이끈다. 따라서 주진행자와 고정출연자 모두 예능·오락 프로그램에서 주도적인 역할로 볼 수 있다.

역할 구분을 살펴보면 주진행자의 경우 여성이 25%(6명), 남성이 75%(18명)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3배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고정 출연자의 경우 여성이 27.1%(36명), 남성이 72.9%(97명)가 등장해 남성이 약 2.6배 더 많이 등장했다. 보조진행자의 경우 여성은 1명 등장할 때 남성은 7명이 등장했다. 주진행자와 보조진행자는 역할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고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위치 있는 사람들이다. **진행자의 위치에 여성이 7명, 남성이 25명이라는 것은 예능 판이 남성 중심으로 짜여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조출연자/ 초대손님으로 등장한 남성 60명, 여성 3명은 <쇼미더머니 8>의 지원자였다. 오디션 프로그램 특성상 보조 출연자의 수가 타 프로그램에 비해 많았던 <쇼미더머니 8>의 지원자를 제외하면 보조 출연자/초대손님으로 등장한 수는 여성 59명, 남성 69명이었다. <쇼미더머니 8>을 제외했을 때 1회성의 단발성 출연을 하는 보조 출연자/ 초대손님에서만 성비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표4] 성별 역할 (단위 : 명)

	주진행자	보조진행자	고정 출연자	보조 출연자 / 초대손님	합계
전체	24(100%)	8 (100%)	133 (100%)	191 (100%)	356
여성	6 (25%)	1 (12.5%)	36 (27.1%)	62 (32.5%)	105
남성	18 (75%)	7 (87.5%)	97 (72.9%)	129 (67.5%)	251

3 2017년 3월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보고서 서울YWCA·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7.03)

(4) 역할에 따른 성별 연령대

역할을 구분해 성별 연령대를 비교했을 때 예능·오락프로그램 속 고정출연자로 등장한 30-50대 남성이 가장 다수였다. 고정 출연자로 등장한 여성과 남성은 20대 이하에서는 약 2배의 성비 차이를 보이지만 30-50대에서는 2.8배의 차이를 보여 더 큰 성비차이를 보였다. 더불어 주 진행자는 전체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3배였지만, 30-50대에서는 4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표5] 역할별 연령대 ⁴ (단위 : 명)

성별		여성			남성			전체
연령대		20대 이하	30-50대	60대 이상	20대 이하	30-50대	60대 이상	합계
역할	주진행자	2 (8.3%)	4 (16.7%)	0	1 (4.2%)	17 (70.8%)	0	24 (100%)
	보조진행자	0	1 (12.5%)	0	0	7 (87.5%)	0	8 (100%)
	고정 출연자	8 (60.1%)	28 (21%)	0	17 (12.8%)	80 (60.1%)	0	133 (100%)
	보조 출연자 초대 손님	25 (13.5%)	21 (11.5%)	11 (6%)	65 (35.3%)	56 (30.4%)	7 (3.8%)	184 (100%)

(5) 성별 직업군

전체 출연자의 직업군을 분석한 결과 총 17개의 직업군에 분포되어 있었다. 전체적으로 가수(105명, 29.4%)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개그맨/코미디언(58명, 16.3%)이 그 뒤를 이었다. 직업군별 성비의 경향성을 살펴보면, 운동선수의 성비 차이가 가장 컸다. 여성 운동선수는 2명 등장했지만 남성 운동선수는 16명이 등장해 8배 많이 등장했다. 방송인/전문 진행자, 언론인 직종에서 남성은 여성에 비해 각각 5배, 7배 많이 등장했지만 주부로 등장한 8명은 모두 여성이었다. 이는 예능 속에서 비춰지는 직업군의 성비 재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운동선수, 언론인(기자 등), 방송인/전문 진행자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할 때, 예능 시청자들은 그 직종들이 남성의 영역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기 쉽다.

[표6] 출연자의 직업군 (단위 : 명)

직업 번호	1	2	3	4	5	7	9	10	15	16
여성	12	16	29	3	3	1	1	0	9	0
남성	46	21	76	1	16	1	7	2	8	1
계	58	37	105	4	19	2	8	2	17	1
직업 번호	17	18	19	20	21	22	23	99	계	
여성	6	1	6	3	2	4	7	2	105	
남성	9	0	0	6	16	4	35	2	251	
계	15	1	6	9	18	8	42	4	356	

직업분류번호

- ① 개그맨/코미디언
- ② 배우
- ③ 가수
- ④ 모델
- ⑤ 방송인/전문진행자
- ⑥ 변호사
- ⑦ 의사
- ⑧ 비평가/평론가
- ⑨ 언론인(기자 등)
- ⑩ 요리사/요리연구가
- ⑪ 작가
- ⑫ 상담사
- ⑬ 교수
- ⑭ 교육 전문가(교사 등)
- ⑮ 그 외 특정 분야 전문가
- ⑯ 학생
- ⑰ 일반시청자
- ⑱ 회사원
- ㉠ 주부
- ㉡ 자영업자
- ㉢ 운동선수
- ㉣ 무직
- ㉤ 모름
- ㉥ 매니저
- ㉦ 기타____

4 연령 '모름'으로 표시된 여성 5명, 남성 1명 제외

(6)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성평등적 내용은 5건, 성차별적 내용은 35건으로 성평등적 내용보다 성차별적 내용이 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차별적인 내용은 총 35건이며 외모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았고(21건, 60%) 뒤이어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을 조장(10건, 28.5%)하는 내용이 많았다.

이번 3월에 진행되었던 예능 모니터링과 비교했을 때 성평등적 내용, 성차별적 내용 모두 감소했다. 변화의 폭은 성평등 사례에서 더 크게 나타났는데, 5월 지표 개선을 통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다루는 방식에 변화를 주었기 때문이다. 3월 모니터링 시에는 예능 속 남성의 가사 노동이 강조 될 경우 이를 성평등한 사례로 보았지만 5월 지표 개선을 통해 남성의 육아가 등장하더라도 남성의 가사 노동이 여성에게 시혜적으로 그려지거나, 단발적이고 이벤트 성의 남성 육아를 보여주는 경우에는 성평등 사례로 포함시키지 않도록 했다. 이는 남성 육아예능의 증가로 미디어에서 남성의 육아를 보여주는 사례가 많아졌지만, 실제적인 육아 분담에 있어서는 여전히 여성이 주도적인 현실을 반영하기 위함이었다. 더불어 실제 관찰예능 속 남성의 모습보다 제작진의 인식 부족이 드러나는 자막 등을 통해 성평등 의미가 반감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전적으로 제작자의 인식 부족 문제인데, 방송 출연자만큼 방송 제작자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성역할 반전이 등장했을 때 자막·진행자의 멘트 등을 더 세심히 보고자 했다.

[표7]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수 (단위 : 건)

구분	건수		구분	건수		
	19년 3월	8월		19년 3월 ⁵	8월	
성평등적 내용	15	5	성 차 별 적 내 용	젠더(성별)고정관념을 조장	25 (52%)	10 (28.5%)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1 (20.8%)	-
				외모에 대한 평가	11 (23%)	21 (60%)
				성적대상화	5 (10.4%)	1 (3%)
				기타	6 (12.5%)	3 (8.5%)
합계	15	5	합계	48	35	

5 3월 예능 모니터링 시에는 선정성 지표가 포함되었지만, 5월 지표 개선으로 이번 모니터링에서는 선정성 지표가 삭제되었다.

1) 성평등적 내용

<비긴어게인3> ————— JTBC

공연을 진두 진휘하며 동료들을 세심하게 격려하는 가수 박정현의 공연 준비 과정과 버스킹이 방송되었다.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식견과 역량을 마음껏 뽐내고 관객들로부터 호응을 이끌어내는 모습, 외국에서 같이 생활하며 공연하는 팀원들을 살피고 공연 준비 과정에서 팀원간 의견이 분분할 때 과감한 결정을 내리기도 했던 박정현의 모습은 성별 구분 없이 누구든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었다.



<캠핑클럽> ————— JTBC

캠핑 중 오수를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핑클 멤버 4인에게 낯설고 어려운 일이지만 모두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한다. 오수뿐 아니라 캠핑을 하며 발생하는 육체적으로 거친 노동에도 힘을 합쳐 해결하는데, 이는 육체노동을 남성의 영역이라고 여기는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다양한 역할상을 보여준다.



2) 성차별적 내용

(1) 젠더(성별) 고정관념을 조장

<우리가 잊고 지냈던 두 번째 연애의 맛> ————— TV조선

남성이 여성을 들어 안고 각종 미션을 수행하며 어떤 커플이 더 오래 버티는지 겨루는 게임이 방송되었다. 해당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남성은 힘이 강해야 하며 여성은 가벼워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게임을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남성은 힘이 강해야 하고, 여성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민폐라는 잘못된 성별 고정관념을 형성할 수 있다. 더불어 게임 중 진행자가 남자는 하체의 힘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멘트에서 이러한 성별 고정관념이 여실 없이 드러났다.



<백종원의 골목식당> ————— SBS

이전에 과제로 내 준 미션을 확인하기 위해 중화떡볶이를 방문한 백종원은 남자 사장과 둘이서만 이야기 하겠다며 누나와 부인은 상황실로 자리를 피해 줄 것을 요청한다. 중화떡볶이 주방은 사장과 누나가 공동 담당하고 과제 수행도 함께 했음에도 백종원은 '남자' 사장하고만 이야기 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정황상 누나와 부인이 대화에서 배제될 이유가 전혀 등장하지 않았으며 같은 회차에 등장한 롱 피자집에서는 군 입대 전 알바로 일하는 남동생도 함께 미션을 확인했다. 따라서 누나와 부인이 배제되어야 할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득이 없는 상태에서 '남자' 사장님하고만 이야기 하겠다고 말하는 백종원의 발언은 최고의 사결정권자를 '남성'으로 상정해 '남성'의 의견이 대표 의견이라고 여기는 가부장적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다.



(2) 성적대상화

<코미디빅리그> — tvN

<이별의 습작> 코너에서 과거 여자친구를 잊지 못해 초상화를 그려 벽에 걸어 놓은 오빠에게 동생이 “이제 그만 잊어”라고 말하며 초상화를 버린다. 벽에 붙어있는 초상화를 드러내자 비키니를 입은 여성의 사진이 걸려있었고 “세상의 반은 여자”라는 문구도 함께 쓰여있다. 동생은 “그래도 우리 오빠가 혈기왕성하네”라고 말하며 여성을 남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바라본 상황을 유머로 소비했다. 여성에 대한 성적대상화가 성차별적 문제임에도 남성의 본능에 충실한 자연스러운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한 것이다.



(3) 외모에 대한 평가

① 외모 평가 및 외모 지상주의 조장

<비긴어게인3> — JTBC

수현이 등장하자 카메라가 아래쪽부터 천천히 위쪽으로 이동하며 수현의 몸을 훑어보기 시작한다. 동시에 ‘악동 뮤지션 컴백 준비로 쏙 빠진 살’이라는 자막을 사용해서 이전보다 살이 빠졌음이 강조된다. 이후 연습 장소에 도착한 수현을 헨리가 위아래로 훑어보며 “왜 이렇게 성숙해졌어?”라고 말한다. 또한 김필도 “살이 진짜 많이 빠졌어!”라고 말하며 이때 과거 방송에서 수현이 음식을 먹던 장면이 지나간다. ‘풍요로운 몸과 마음’이라는 자막을 넣어 살찐 수현을 표현한다. 수현은 남성 출연자들과 달리 카메라 앵글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멤버들과 오랜만에 재회해 안부 인사를 나누는 과정까지 대부분의 대화가 수현의 다이어트와 몸매를 소재로 연결된다. 다이어트를 해서 살이 빠진 것을 성숙함 또는 긍정적이고 칭찬받을 일로 부각시키는 것은 여성들이 몸매를 관리하고 살을 빼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② 외모 비하 및 모욕

<코미디빅리그> — tvN

8월 11일 <안녕하시쇼> 코너는 외모 조롱 및 비하를 주요 유머로 삼았다. 박나래는 “우리 남편은 사람이 아니어서 고민이에요”라며 야수분장을 하고 나온 남자 개그맨의 왕자시절의 사진을 보여준다. 출연진들은 “어디 이게 왕자야, 어딜 봐서 왕자야”라며 외모를 평가하고 해당 사진 속에 있는 남성을 조롱한다. 그러자 야수 역(이상준)이 아내(박나래)에게 “너도 원래대로 돌아갈까봐 내가 키스를 안하는 거야”라며 과거의 사진을 보여주고 같은 방식의 외모 조롱이 이어진다. 이후 “외모가 뭐가 중요하냐 내면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이라고 하더니 커플 방청객 중 남자를 보고 “넌 내면만 봤구나”라고 하며 여자 방청객의 외모를 조롱했다. 마지막 부분에서 부부가 화해를 하며 아내가 남편의 볼에 키스를 하자 진행자(김기욱)가 “야수가 드디어 왕자로 변하나요?”라고 하는데 야수(이상준)가 변하지 않자 “봐 애 미녀 아니라고 했지”라며 역시 여성 출연자인 박나래의 외모를 지속적으로 조롱했다.



04 나가며 : 외모에 대한 조롱, 미화, 평가는 유머가 아닌 차별입니다.

이번 모니터링은 기존의 TV 시청률 상위 프로그램을 선정했던 방식과 다르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콘텐츠 가치정보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네이버TV, 유튜브, 곰TV, 엠군, 풀빵의 동영상 조회수를 기준⁶으로 상위 18편을 선정하였다. 디지털 미디어의 성장으로 달라진 예능 시청 형태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TV는 연령이 높을수록 이용 빈도가 높고, 스마트폰과 PC/노트북은 연령이 낮을수록 이용 빈도가 높다⁷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모니터링은 3월 모니터링 때 선정되었던 프로그램에 비해 어린 연령대가 선호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시청자 버즈가 높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되고 있다는 것이므로, 이번 모니터링 대상 프로그램 속 성차별을 살펴보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프로그램 선정 방식을 바꾸었음에도 예능 속 성비 불균형은 여전했다. 지난 3월 예능 모니터링⁸에서는 18개의 프로그램 속 전체 출연자 성비가 여성 42.1%(250명), 남성 57.9%(344명)를 보였는데 이번 8월 모니터링에서는 전체 출연자 성비는 여성 29.5%(105명), 남성 70.5%(251명)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2배 이상 많이 등장했다. <뭉쳐야 찬다>의 경우 남성 23명이 등장할 때 여성은 0명 등장했고, <쇼미더머니 8>는 모든 성별이 출연 가능한 서바이벌 프로그램임에도 남성이 60명, 여성은 고작 3명 등장했다. 지난 3월 예능·오락프로그램 모니터링⁹에서 남성이 12배 더 많이 등장했던 <아는 형님>의 경우 이번 모니터링에서는 남성이 17배 더 많이 등장해 여전히 극심한 성비 불균형을 보여주었다.

지난 3월 예능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뤘던 문제의식은 예능 속 여성에게 주어진 자리가 한정적이라는 점이었다. 여성들에게 주어진 자리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지원자(내일은 미스트롯, 전국노래자랑, 불후의 명곡), 일회성의 게스트 출연(라디오스타, 아는 형님)이나 홍일점 MC(도시어부, 수미네 반찬)정도로 매우 한정적이었으며, 이 한정적인 자리에서 나이든 여성의 입지는 더욱 좁았다. 이는 이번 모니터링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여성은 30대 이하의 출연자(67.6%)가 남성은 30대 이상의 출연자(66.9%)가 많이 등장했고, 50대 남성은 같은 연령대의 여성에 비해 3.8배 더 많이 등장했다. 역할에 있어서도 주·보조 진행자 역할에 여성은 7명, 남성은 25명이 등장해 예능을 이끄는 역할이 남성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성차별 내용으로 가장 많이 지적된 사례는 ‘외모에 대한 평가’였다. 모니터링 결과, 여성의 직업군에 따라 외모를 평가, 미화, 조롱, 비하 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별 직업군 분석에 따르면(표6 참조) 가수, 배우, 개그맨 순으로 출연자가 많았는데, 가수와 배우의 경우에는 외모 평가로, 개그맨의 경우에는 외모 비하로 이어졌다. <비긴어게인 3>의 출연자인 가수 수현은 ‘악동 뮤지션 컴백 준비로 쏙 빠진 살’이라는 자막과 함께 등장하자마자 다른 출연진에게 외모 평가를 들어야했다. 가수, 배우 직업군을 향한 외모 평가 및 미화가 예능 속에서 당연히 될 때, 본인의 노래 실력으로만 평가받고 싶은 자리에서 여성 가수는 외모로 먼저 평가 및 언급 된다는 것을 <쇼미더머니 8>이 보여주었다. <쇼미더머니 8>에 여성 지원

자는 5명이 채 안되었고, 심사위원 크루들은 모두 남성이었다. 그 중 몇 안 되는 여성 지원자였던 윤혜이가 본인의 팀을 정하기 위해 무대에 올랐을 때, 크루들이 윤혜이에게 본인의 팀에 들어오라고 어필하는 방식은 외모에 대한 칭찬이었다. 이는 남성 지원자가 등장했을 때는 크루들이 음악 스타일이나 무대 컨셉으로 어필했던 것과 대비된다. 윤혜이는 랩으로 인정받기 위해 무대에 오른 가수였지만 본인의 랩과 상관없이 외모가 강조된 것이다. 물론 남성 배우와 가수들을 대상으로 한 외모 언급 및 평가 또한 다수 발견되었다. 하지만 <주간 아이돌>의 사례는 외모에 대한 평가가 여성에게 더욱 많이 적용됨을 보여준다. 3회차의 모니터링 분량에서 남성 아이돌이 출연 했을 때에는 외모보다 개인의 능력(노래, 춤 등 개인기)에 대한 언급이 주를 이뤘던 반면, <주간 아이돌>에 출연한 여자 아이돌은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외모’와 연계되어 언급되었다. 더불어 <호구들의 감빵생활> <뽕따러 가세>는 여성에게 ‘젊음’과 ‘외모’가 중요한 가치라는 성차별적 주장을 지속적으로 노출했다. ‘젊음’에 대한 언급이 여성에게만 주어졌을 때,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예능 제작진이 젊은 여성을 선호하는 성차별적인 경향성이 공고히 유지된다.

<코미디빅리그> 속 개그맨 박나래와 이국주의 외모와 체형은 끊임없이 조롱과 비하의 대상이 되었다. <코미디 빅리그>에서 성차별 사례로 발견된 6건은 모두 외모(얼굴과 체형)를 비하하는 것을 유머의 핵심 코드로 삼고 있었다. 똥똥한 여성의 체형을 조롱하는 것이 코너의 핵심인 <국주의 거짓말>의 경우 이국주가 ‘똥똥하기’ 때문에 개미를 주워먹고, 신발 끈을 묶지 못하고, 끊임없이 먹는다는 조롱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개그’를 전면에 내세운 프로그램에서 외모 비하가 주를 이룬다는 것은, 한국 예능 속 유머 방식이 외모에 대한 비하를 당연히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타인의 외모에 대한 조롱, 미화, 평가는 유머가 아닌 차별이다. 외모를 평가, 언급, 미화, 조롱하는 발언은 재밌지도 않고 재밌게 그려져서도 안 된다. 예능 프로그램 속 유머가 지니고 있는 차별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6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시스템 (RACOI) Q&A, 방송통신위원회, 2018
7 2018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방송통신위원회, 2018.
8 2019년 3월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보고서 서울YWCA·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9.03)
9 2019년 3월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보고서 서울YWCA·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9.03)

1) 성평등적 내용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JTBC <비긴어게인3> 8월 16일 (5회)	공연을 진두진휘하며 동료들을 세심하게 격려하는 가수 박정현의 공연 준비 과정과 버스킹이 방송되었다. 자기 분야에서 전문적 식견과 역량을 마음껏 뽐내고 관객에게 호응을 이끌어내는 모습, 외국에서 같이 생활하며 팀원들을 살피고 공연 준비 과정에서 팀원 간 의견이 분분할 때 과감한 결정을 내리기도 했던 박정현의 모습은 성별에 구분 없이 누구든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었다.	
JTBC <캠핑클럽> 8월 18일 (6회)	캠핑 중 오수 처리 문제가 생긴다. 핑클 멤버 4인에게 낯설고 어려운 일이지만 모두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한다. 오수뿐 아니라 캠핑을 하며 발생하는 육체적으로 거친 노동에도 힘을 합쳐 해결하는데, 이는 육체노동을 남성의 영역이라고 여기는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다양한 역할상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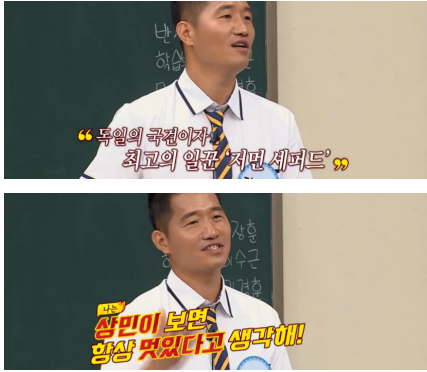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TV조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내의 맛> 8월 13일 (59회)	동네사람들에게 닭백숙을 대접하기 위해 가수 송가인의 부모가 시장을 보고 닭을 삶는 과정이 방송되었다. 송가인의 아버지는 불을 피우고 살을 바르는 일까지 가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시골에 사는 나이 많은 중년 부부 관계 속 가사 노동은 여성의 몫일 것이라는 성차별적 편견을 깨는 장면이었다.	
8월 20일 (60회)	진화가 딸 혜정과 처음으로 문화센터를 방문해 또래의 친구들을 만나고 아이들의 부모와 육아에 대해 대화는 나누는 모습이 방송되었다. 문화센터에 아이와 아빠가 함께 가는 모습을 통해 육아가 여성의 전담 영역이 아닌 부모가 함께 하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SBS <동상이몽> 8월 12일 (107회)	윤상현은 아이들을 위해 집안에 풀장을 설치하고, 수박즙을 만든다. 육아에 있어 '보조'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집안일을 자신의 몫으로 여기는 윤상현의 모습은 새로운 남성상을 보여주었다. 단 메이비(아내)와 윤상현 모두 집안일을 함에도 윤상현의 가사 노동을 부각해, 메이비를 '남편 잘 만난 윤이 좋은 아내' 이라고 부르는 팬들의 발언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남성의 가사 노동이 여성에게 시혜적이라는 성차별적인 인식을 공고히 할 수 있기에 지양해야 한다.	

2) 성차별적 내용

(1) 젠더(성별) 고정관념을 조장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8월 21일 (80회)	전에 과제로 내 준 미션을 확인하기 위해 중화떡볶이 식당을 방문한 백종원은 남자 사장님과 둘이서만 이야기 하겠다며 누나와 부인은 상황실로 자리를 피해 줄 것을 요청한다. 중화떡볶이 주방은 남사장과 누나가 공동 담당하고 있고 과제 수행도 함께 했음에도 백종원은 ‘남자’ 사장하고만 이야기 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해당 방송 내에서 누나와 부인이 대화에서 배제될 이유가 전혀 등장하지 않았으며 같은 회차에 등장한 룡 피자집에서는 군 입대 전 알바로 일하는 남동생도 함께 미션을 확인했었다. 따라서 누나와 부인이 배제되어야 할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득이 없는 상태에서 ‘남자’ 사장님하고만 이야기 하겠다고 말하는 백종원 발언은 최고 의사결정권자를 ‘남성’으로 상징해 ‘남성’의 의견이 대표 의견이라고 여기는 가부장적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다.	
TV조선 <뽕따라가세> 8월 29일 (7회)	사연 신청자 여성이 띄약별 아래 논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가수 송가인은 “여자분이신데 대단하시다”라고 말한다. 고된 것으로 취급되는 육체노동은 남성들이 도맡는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성차별적인 발언이다.	
tvN <호구들의 감빵생활> 8월 17일 (23화)	슈팅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광희가 무릎을 모으며 공을 막으려 했지만 다리 사이로 공이 빠져나간다. 광희의 자세를 두고 제작진은 “다소곳이”라는 표현과 “예쁘게 실점”이라는 자막을 달았으며, 출연자 황제성은 “여중생인줄 알았어”라고 말하고, “여중생 감성 물씬~”이라는 자막을 노출했다. 모두 남성 출연자의 모습이 ‘여성스럽다’며 조롱하는 내용이었다. ‘무릎을 모으며 앉는 자세’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를 여성의 몸짓으로 규정할 뿐 아니라, 남성은 운동을 잘하고 여성은 운동을 하지 못한다는 고정관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문제적이다. 또한 ‘여’라는 접두사를 붙여 성별을 강조하는 ‘여중생’과 같은 표현은 방송에서 지양해야 한다.	
	사회자 김태진이 위키미키의 김도연과 개그맨 장도연을 ‘젊은 도연 늙은 도연’으로 구분하는 장면이 방영되었다. 위키미키의 김도연이 기존 출연자 중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냐는 질문을 받아 “진짜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죠”라며 운을 떼고 “장도연 선배님” 이라고 답한다. 장도연이 기뻐하자 김태진은 “젊은 도연, 늙은 도연”으로 칭하며 나이에 따라 이들을 구분했다. 장도연이 “늙은 도연이라니”라고 불편한 기색을 표했으나 자막은 지속적으로 ‘젊은 도연 늙은 도연’, ‘젊도 늙도’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 여성 연예인을 이분법적으로 묘사했으며 이는 여성의 젊음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편견을 조장한다.	 
tvN <코미디빅리그> 8월 18일 (324회)	이정수가 좋아하는 음식점이 없어진다는 소식을 전하며 서운한 생각에 훌쩍이자 박영재가 “남자가 뭐 그런걸로 울어 임마” 라고 말하는 장면이 방송되었다. 남자는 우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되고 강한 이미지를 지녀야 한다는 성별 고정관념을 조장한다.	
Mnet <쇼미더머니8> 8월 16일 (5화)	릴보이가 인터뷰 중 크루 대항전을 떠올리며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으로 이케이(EK)를 꼽았다. 그 이유로는 “완전 상남자”, “사나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흔히 상남자는 거친 남성성을 강조하는 말로 쓰인다. 상남자라는 이유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었다는 것은 남자는 거칠고 카리스마 있어야 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강화한다.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JTBC <아는형님> 8월 24일 (194회)	강형욱은 “나는 솔직히 상민이 보면 항상 멋있다고 생각해! 독일에서 최고의 일꾼으로 계획적으로 만든 것이 셰퍼드인데, 나는 상민이 딱 보면 (셰퍼드와 같은) 뭔가 남자 같은 느낌을 받아서, ‘남자다!’ 느끼면 나는 무조건 셰퍼드라고 이야기 해”라고 말한다. 여기서 ‘남자다!’라는 느낌은 ‘멋있고’, ‘최고의 일꾼’과 연결되는데, 이는 ‘남성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고착화한다.	
JTBC <물쳐야 산다> 8월 29일 (12회)	출연자들의 족상을 분석하며 정력 관련 이야기가 나왔다. 정력 순위가 낮은 출연진은 당황해하며 부끄러워하고 다른 출연진들은 “과거 ‘정자왕’으로 뽑혔었다”, “마음만 먹으면(?) 애를 낳았다”고 이야기하며 본인의 정력을 자랑했다. tv에서 남성끼리 서로의 성욕을 자연스럽게 조절 불가능한 것으로 그려내며 정력이 강할수록 좋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남성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한다.	
SBS <동상이몽> 8월 19일 (108회)	김원중-곽지영 부부의 아침 모습 중 아내가 먼저 일어나 아침 식사 준비한 후 남편을 깨워 식사하는 장면이 방송되었다. 여성이 가사를 온전히 전담하는 장면을 문제의식 없이 내보내는 것은, 가사노동은 여성의 영역이라는 잘못된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한다.	
TV조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내의 맛> 8월 15일 (12회)	남성이 여성을 들어 안고 각종 미션을 수행하며 어떤 커플이 더 오래 버티는지 겨루는 게임이 방송되었다. 해당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남성은 힘이 강해야 하며 여성은 가벼워야 한다. 이같은 게임을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남성은 힘이 강해야 하고, 여성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민폐라는 잘못된 성별 고정관념을 형성할 수 있다. 더불어 게임 중 진행자가 남자는 하체의 힘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멘트에서 이러한 성별 고정관념이 여실히 드러났다.	

(2) 외모에 대한 평가

① 외모 평가와 외모 지상주의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JTBC <비긴어게인3> 8월 23일 (6회)	수현이 등장하자 카메라 앵글이 아래쪽부터 천천히 위쪽으로 이동하며 수현의 몸을 훑어보기 시작한다. 동시에 ‘악동 뮤지션 컴백 준비로 쏙 빠진 살’이라는 자막을 사용해서 이전보다 살이 빠졌음이 강조된다. 이후 연습 장소에 도착한 수현을 헨리가 위아래로 훑어보며 “왜 이렇게 성숙해졌어?”라고 말한다. 또한 김필도 “살이 진짜 많이 빠졌어!”라고 말하며 이때 과거 방송에서 수현이 음식을 먹던 장면이 지나간다. ‘풍요로운 몸과 마음’이라는 자막을 넣어 살찐 수현을 표현한다. 수현은 남성 출연자들과 달리 등장부터 멤버들과 오랜만에 재회해 안부 인사를 나누는 과정까지 대부분의 대화가 수현의 다이어트와 몸매를 소재로 연결된다. 다이어트를 해서 살이 빠진 것을 성숙함 또는 긍정적이고 칭찬받을 일로 부각시키는 것은 여성들이 몸매를 관리하고 살을 빼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8월 11일 (290회)	문희준의 딸 희율이 아침 세수 후 화장 놀이하는 장면이 방송되었다. 화장 장난감을 이용해 노는 희율의 모습을 제작진은 ‘잼잼 뷰티티비’라고 이름 지으며 화장한 희율의 모습에 “치명”이라는 자막을 달았다. 3살인 여아에게 ‘치명’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성인과 유사한 외모를 어린 아이에게 강조하기에 매우 부적절하다. 미디어가 어린 여아가 화장을 통해 ‘예쁜 여상’으로 ‘완성’되는 이미지를 강조할 때, 이는 어린 아이들에게 지나친 외모 강박을 심어 줄 수 있으며 동시에 아동 성상품화로 연결될 위험 또한 존재한다.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TV조선 〈뽕따라가세〉 8월 22일 (6화)	봄이 일반인 출연자 부부에게 상대방의 좋은점을 묻자 남편이 “아내는 틀림없는 사람”이라고 대답한다. 예쁘다라는 대답을 듣고자 봄은 재차 아내의 어떤 점이 이쁘냐고 물어도 “키가 커서 결혼했고 이쁜 점은 없다”고 말했고 송가인은 “여자는 나이 먹어도 여자여, 이쁘다고 하면 어디 났나냐” 따진다. 이는 부부관계에서 여성에게는 외모가 최고의 가치라는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한다.	 
tvN 〈호구들의 감빵생활〉 8월 17일 (23화)	승부차기에 정직반의 한보름이 출전한다. 평소 프로그램 내에서 ‘나이 많은 여성’으로 언급되었던 한보름이 스튜디오 한쪽에 서자 프로그램 진행 상황과 전혀 무관하게 이상엽은 “보름아 너 거기 서니까 되게”라고 말끝을 흐리고 정형돈이 “보름이 우리 팀에서 제일 예뻐”라며 갑작스럽게 외모를 평가한다. 이후 황제성이 “보름이 우리 팀에서 제일 예뻐. 제일 아름답구”라고 말하며 ‘정직반 최고미녀(?) 등판’이라는 자막이 띄워진다. 이는 나이 많은 여성에 대한 조롱이며 여성의 외모에 대한 평가를 유머로 소비하기에 문제적이다.	
MBC every1 〈주간아이돌〉 8월 28일 (422화)	최근 방영된 주간 아이돌의 세 편을 모니터링한 결과, 남성 아이돌과 여성 아이돌이 출연했을 때 외모에 대한 언급 횟수가 달랐다. 남성 아이돌 출연 시에는 외모보다 개인의 능력(노래, 춤 등 개인기)에 대한 언급이 주를 이뤘던 반면, 여성 아이돌은 “리즈 시절이 언제였다고 생각하나요?”와 같은 외모 관련 질문이 이뤄졌다. 이는 여성의 외모에 대한 평가가 빈번히 이뤄지는 현실을 드러내며 동시에 프로그램을 통해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한 사례이다.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MBC every1 〈주간아이돌〉 8월 28일 (422화)	‘과연 조이는 어떤 공주일까?’라는 코너에서 레드벨벳 조이가 공주님이 나오는 동화책 표지 프레임에 맞춰 동화의 공주를 연기한다. 이는 조이의 미모가 마치 ‘공주’같이 ‘예뻐졌기’ 때문이었는데, 이는 여성에게 외모를 강조하는 외모지상주의가 전제된 성차별적인 내용이다. 더불어 여성을 공주로 연결시키는 것은 남자-왕자, 여자-공주라는 전통적인 이분법에 근거한 젠더 고정관념이 포함되어 있다.	 
	방송 진행 센스를 칭찬하는 장면에서 ‘미모’도 완벽하다는 불필요한 자막이 따라왔다. 방송을 잘하는 능력은 지극히 외모와 개별적임에도 맥락과 무관하게 외모를 강조한 것이다.	
Mnet 〈쇼미더머니8〉 8월 16일 (4화)	심사위원 크루들이 여성 래퍼인 윤혜이를 자신의 팀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어필하는 장면이 방영되었다. 다른 남성 크루들에게는 랩, 패션 스타일 등을 언급하며 팀 영입을 제안하는 반면 윤혜이가 등장하자마자 ‘모델 같다’, ‘빛이 난다’, ‘예쁘다’ 등의 외모와 관련된 칭찬이 이어졌다.	 
SBS 〈집사부일체〉 8월 25일 (83화)	녹음 전날 노사연이 냉면을 먹어 역류성 식도염으로 목소리가 갈라지는 힘든 상황에서도, 제자 중 잘생겼다고 평가받는 이승기와 육성재를 바라보며 행복해한다. 노래를 잘 부르자 이무송은 “갑자기 왜 어제처럼 잘하냐”, “잘 생기고 어린 남자들이 와서 그러냐”고 몰아붙이고 노사연은 부인하지 않는다. 이러한 대화와 상황 모두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긴다.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TV조선 〈뽕따라가세〉 8월 15일 (5회)	해수욕장을 방문한 송가인을 보기 위해 몰려든 시민 중 유독 상반신을 노출한 근육질의 남성들을 오랫동안 노출시켰다. 이들에게 송가인이 “잘생겼어요”라고 말하자 ‘송가인 근무 환경 최상’, ‘좋은 몸 옆 또 좋은 몸’ 등의 자막이 따라왔다. 또한 ‘반전매력 남 성난 몸에 순한 이특’이라는 자막으로 몸매와 외모가 뛰어나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이처럼 근육질의 몸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남성의 외형에 알맞은 체형이나 외모의 기준이 있다는 인식을 만들어내며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한다.	
JTBC 〈아는형님〉 8월 31일 (195회)	프로그램 초반부터 게스트와 패널들의 외모 평가가 대화의 주를 이뤘다. 박지훈이 아는형님에 세 번째 출연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자 이수근은 “지훈이 살쥔네”라고 말한다. 박지훈은 곤란한 표정을 짓지만 자막은 “됐고 지훈이 살쥔데?”라며 이수근의 발언을 재차 언급한다. 또한 게스트들이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에 출연하는 만큼 이들에게 조선시대 기준으로 외모를 평가해달라고 부탁하는 대화가 계속 오고간다.	

② 외모 비하 및 모욕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MBC 〈나혼자산다〉 8월 16일 (307회)	박나래가 몸무게 감량을 자랑하기 위해 오프닝 멘트로 ‘저 달라진 거 없어요?’라고 묻는다. 이에 남성회원들은 ‘턱에 뭐 낳어요’, ‘여기 여드름’, ‘얼굴이 까매졌어요’와 같이 외모를 조롱하는 반응을 보였다.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SBS 〈집사부일체〉 8월 25일 (83회)	결혼을 할 때 “아름답다고 결혼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외모보다는 인성을 봐야한다는 이무송의 발언에 양세형은 “디스(?)를 가장한 최고의 칭찬이네요”라고 말한다. 이는 노사연의 외모를 조롱하며 유머로 삼는 장면이었다.	
tvN 〈코미디빅리그〉 8월 11일 (323회)	<안녕하시죠> 코너에서 “우리 남편은 사람이 아니어서 고민이에요”라며 야수분장을 하고 나온 남자 개그맨의 왕자시절의 사진을 보여준다. 그러자 “어디 이게 왕자야, 어딜 봐서 왕자야”라며 외모를 평가하고 해당 사진 속에 있는 남성을 조롱했다. 그러자 야수 역(이상준)이 아내(박나래)에게 “너도 원래대로 돌아갈까봐 내가 키스를 안하는 거야”라며 과거의 사진을 보여주고 여기서 위와 같은 방식의 외모 조롱이 이어진다. 이후 “외모가 뭐가 중요하냐 내면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이라고 하더니 커플 방청객 중 남자를 보고 “넌 내면만 봤구나”라고 하며 여자 방청객의 외모를 조롱했다. 마지막 부분에서 부부가 화해를 하며 아내가 남편의 볼에 키스를 하자 진행자가(김기욱) “야수가 드디어 왕자로 변하나요?”라고 하는데 야수(이상준)가 변하지 않자 “봐 애 미녀 아니라고 했지”라며 역시 여성 출연자인 박나래의 외모를 지속적으로 조롱했다.	
8월 18일 (324회)	<안녕하시죠> 코너에서 게임을 좋아하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나요? 질문에 “친구가 백만원 준다”고해서 결혼했다며 친구에게 영상편지를 쓰는데 “친구가 내가 천만원 줄게 이 여자 데려가”라고 말해 여자를 돈으로 사고팔 수 있는 물건으로 취급하고 객체화했다. 그리고 왕게임을 한다며 번호를 호명해 남자 방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8월 25일 (325회)	청객을 일으켜고 또 다른 번호를 불러놓고 아무도 일어나지 않자 “재 얼굴보고 안 일어나는 거야?”라며 남성 방청객의 외모를 조롱했다. 또한 자신의 성이 지 씨이기 때문에 이름 짓기가 나쁘다며 “우리 아버지는 비밀이 많았지 우리아버지 이름은 지뽕구리 폴더였어”라고 덧붙였는데 이는 불법음란물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오히려 유머로 소비한 문제적 상황이다. 이 사례의 경우 남성 성규범 강화, 여성 객체화 등 여러 성차별 내용들이 담겨있지만, 해당 개그 코너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문제가 외모 혐오이기 때문에 외모 지상주의 카테고리에 넣었다.	
	<국주의 거짓말> 코너에서 세 사람이 동시에 같은 동작을 하는 게임을 진행한다. 문제로 “이국주”가 나오자 두 남성 출연자는 이국주가 짬뽕 먹는 모습, 짬뽕에 밥 말아 먹는 모습, (똥똥해서) 발톱을 혼자 못 깎는 모습, (배가 고파서) 개미를 주워 먹는 모습 등을 연출했다. 이는 이국주의 체형을 조롱하는 행위이다.	
	<나쭈의 ASMR> 코너에서 방청객이 등장하여 소개팅 상황극을 하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이국주가 상대 여성으로 등장하고 상황극을 제안한 남자 개그맨(이상준)이 방청객에게 “국주 그래도 예쁘죠? 국주 그래도 가까이서 보니까 작죠?”라고 묻는다. 방청객은 “네 예뻐요. 네 진짜 작아요”라고 답하는데 이러한 질문과 답변 모두 여성은 체형이 작고 여리여리한 몸매를 지녀야 한다는 특정 미의 기준을 강조한다.	
	<동네으른들> 코너에서 동네어른(이진호)이 코빅의 이국주 코너를 좋아한다며 “김국주(이국주)가 썸남과 데이트하며 스티커 사진을 찍었다고 말하는 게 웃겼다”고 하자 박영재가 “아저씨도 이국주가 썸남이랑 데이트한다는 게 웃기다는걸 아시네요”라고 답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했다. 이에 대해 “아니지 김국주(이국주)가 스티커 사진 프레임 안에 들어간다는 게 웃긴거지”라며 이국주의 외모를 조롱했다. 여성의 외형을 평가하고 적절한 체형을 기준으로 삼아 그 기준을 넘어가면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다. 또한 박영재가 “나는 이여자도 좋고 저 여자도 좋은데 내가 바람기가 있는건가”라고 친구에게 고민을 말하는 데 동네어른(이진호)이 “넌 기름기가 많지”라며 뚱뚱한 체형을 비하했다.	
	<안녕하시죠> 코너에서 박나래가 화가 많은 남편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는다. 캐릭터 앵그리버드의 모습으로 분장한 남편이 등장해서 박나래에게 “내가 매일 화를 내서 나를 제일 무서운 새인줄 아는데, 제일 무서운 새는 내가 아니야”라고 말한다. “누군데?”라고 박나래가 묻자 “니 생김새”라며 아내인 박나래 외모를 조롱한다.	
JTBC <아는형님> 8월 17일 (193회)	게스트로 출연한 이용진이 김영철에게 “왜 이렇게 말랐어? 무말랭이처럼”이라고 외모를 조롱한다. 이에 김영철이 “운동해서 살 빠졌다. 왜!”라고 하자 황제성은 “운동했어? 나는 들어오자마자 깜짝 놀랐어. 오이 소박인줄 알고”라고 다시 한 번 외모 조롱을 이어간다. 이러한 대화는 타인의 외모를 함부로 조롱해도 웃기면 괜찮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양산해낸다.	
8월 24일 (194회)	패널들과 닮은 개를 찾아보는 코너에서 김영철에 대한 외모 비하와 조롱이 계속되었다. 김영철과 개 사진을 나란히 둔 영상이 지나가자 김희철은 “근데 개가 더 잘생겼다”라고 말했고 자막에서도 “다수의견: 개가 영철이보다 더 잘생김”이라며 외모를 조롱했다.	 

(3) 성적대상화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tvN <코미디빅리그> 8월 25일 (325화)	<이별의 습작> 코너에서 과거 여자친구를 잊지 못해 초상화를 그려 벽에 걸어 놓은 오빠에게 동생이 “이제 그만 잊어”라고 말하며 초상화를 버린다. 벽에 붙어있는 초상화를 드러내자 비키니를 입은 여성의 사진이 걸려있었고 “세상의 반은 여자”라는 문구도 함께 쓰여있다. 동생은 “그래도 우리 오빠가 혈기왕성하네”라고 말하며 여성을 남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바라본 상황을 유머로 소비했다. 여성에 대한 성적대상화가 성차별의 문제임에도 남성의 본능에 충실한 자연스러운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한 것이다.	

(4) 기타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8월 11일 (290화)	라이온킹 FC라는 어린이 축구단을 창단하여 축구경기를 진행한다. 설아, 수아 자매 친구인 축구 단원인 남아는 편집과 자막을 통해 두 자매의 첫사랑으로 소개된다. 어린이들의 자연스러운 행위를 이성애적 로맨스 관계로 규정한 사례다.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8월 18일 (291화)	시안이와 나은이가 오랜만에 만나는 장면에서 남아인 시안이가 차를 운전하고 여아인 나은이가 뒷좌석에 앉아 어딘가로 데리고 가길 기다리는 설정이 연출되었다. 운전은 남성의 몫이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바탕에 둔 설정이다. 또한 시안이가 차를 운전하기 시작하자 힙합 가수 인크레더블의 '오빠차'라는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사용되고, '오빠가 널 데려갈 곳이 있단다' '나만 믿어' 등의 자막을 통해 아이들에게 불필요한 이성애 관계를 덧입혔다.	 
TV조선 <뽕따라가세> 8월 29일 (7화)	송가인의 본가인 진도 축제에 참석한 봄이 송가인의 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리는 내용이 방송되었다. 봄은 송가인의 아버지에게 “다른 남자 데리고 온 적 있나요?”라고 묻고 자막은 ‘혼례필수품’, ‘상견례’, ‘결혼’ 등의 단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한다. 7~8분 동안 방영된 해당 내용은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두 출연자의 관계를 이성애 연애 관계로만 바라보게 해 이성애적 로맨스를 강조하며 이성애 연애관계 외의 다양한 인간관계를 부정한다.	 

1. 모니터요원 :

2. 방송사

- ① KBS1
- ② KBS2
- ③ MBC
- ④ SBS
- ⑤ JTBC
- ⑥ MBN
- ⑦ 채널A
- ⑧ TV조선
- ⑨ tvN
- ⑩ MBCevery1

3. 방영시간대 :

- ① 06:00-08:00
- ② 08:00-10:00
- ③ 10:00-12:00
- ④ 12:00-14:00
- ⑤ 14:00-16:00
- ⑥ 16:00-18:00
- ⑦ 18:00-20:00
- ⑧ 20:00-22:00
- ⑨ 22:00-24:00
- ⑩ 24:00-06:00

4. 출연자 성비 분석(단위 : 명)

구분	인원수
4-1. 전체	
4-2. 여성	
4-3. 남성	

5. 출연자 분석

5-1. 이름	
5-2. 성별	① 여성 ② 남성
5-3. 연령	① 10대 이하 ② 10대 ③ 20대 ④ 30대 ⑤ 40대 ⑥ 50대 ⑦ 60대 ⑧ 70대 이상 ⑨ 모름
5-4. 직업	① 개그맨/코미디언 ② 배우 ③ 가수 ④ 모델 ⑤ 방송인/전문진행자 ⑥ 변호사 ⑦ 의사 ⑧ 비평가/평론가 ⑨ 언론인(기자 등) ⑩ 요리사/요리연구가 ⑪ 작가 ⑫ 상담사 ⑬ 교수 ⑭ 교육 전문가(교사 등) ⑮ 그 외 특정 분야 전문가 ⑯ 학생 ⑰ 일반시청자 ⑱ 회사원 ⑲ 주부 ⑳ 자영업자 ㉑ 운동선수 ㉒ 무직 ㉓ 모름 ㉔ 기타_____
5-5. 역할	① 주진행자 ② 보조진행자 ③ 고정출연자 ④ 보조 출연자/초대손님 ⑤ 기타

6. 내용분석

• 성평등적 내용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시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 성차별적 내용

구분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시 (회차)	내용 및 이유
젠더(성별) 고정관념을 조장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외모에 대한 평가				
성적 대상화				
기타				

1. 성평등적내용 : 주체성, 현실 반영성, 대안성, 다양성을 중심으로.

- 성불평등적인 젠더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성이 처한 문제와 상황을 잘 파악하여 남녀불균형적인 현실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는가?
- 성평등을 위한 문제 해결방식을 과장되거나 희화화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 전통적으로 남성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분야에 진출한 여성의 능동성을 보여주고 있는가?
- 여성이 본인의 신념과 철학에 따라 일을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장면을 제시하는가?
- 성역할 고정 관념에서 벗어난 다양한 역할을 표현하고 있는가?
- 다양한 가족형태를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 나이, 성별 등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있는가?

2. 성차별적내용

- ① 젠더(성별)고정관념을 조장
 - 여성성/남성성을 이분법적으로 규정하여 고정관념을 고착화하는 내용을 보이고 있는가?
 - 특정 역할에서 성비의 수적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가?
 - 남성중심적 성규범(강간 통념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무분별하게 보여주고 있는가?
 - 여성을 남성의 단순보조나 부속물로 취급하는 내용 혹은 그렇게 보이도록 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가?
- ②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 가정폭력, 성희롱, 성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미화해 그리고 있는가?
 - 출연자 및 방청객을 성희롱하는 행위 및 언어를 포함하고 있는가?
 - 가정폭력, 성희롱, 성폭력을 불필요하게 노골적으로 전시하고 있는가?
- ③ 외모에 대한 평가
 -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을 하는가?
 - 출연자의 외모를 조롱, 혐오의 대상으로 삼거나 그와 관련된 언어를 사용하는가?
- ④ 성적대상화
 - 카메라의 구도나 움직임이 여성이나 남성의 신체를 분절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만을 부각하여 전시하는가?
 - 여성을 남성의 성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바라보는가?
- ⑤ 기타
 - 독신, 한부모, 이혼가족, 재혼가족, 동성가족, 입양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부적으로 그리거나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 00녀와 같은 가부장적이거나 성차별적인 단어(혹은 어휘, 혹은 표현)를 사용하는가?

발행일 | 2019년 10월
발행처 | 서울YWCA
발행인 | 이유림
작성 | 강유민 황경희 (서울YWCA 여성운동국)
자문 | 김수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여성학협동과정 부교수)
협력기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본 사업은 서울YWCA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것입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수행기관의 의견으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